# 상명대·한국외대·호서대 등 18곳 '고교교육 기여' S등급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 발표**

**S등급, 사업비 10% 추가 지원 B등급 학교는 예산 10% 삭감**

교육부.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상명대와 한국외대, 호서대 등 18개교가 S등급을 받아 추가 지원받는 반면, 이화여대와 홍익대 등 18개교는 B등급으로 분류돼 예산이 10% 삭감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8학년도 대입개편을 앞두고 대학들의 전형 개선 노력을 점검한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입학전형과 고교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운영되며 총 585억3300만원이 투입된다. 기본사업에는 91개교에 536억8200만원, 자율공모사업에는 16개교에 38억51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번 연차평가는 4주기 사업 2차 연도에 해당하는 2026년 지원 규모를 정하기 위해 실시됐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 선정된 전국 91개 대학이며, 교육부와 대교협은 2025년 사업 운영 실적과 2027·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대입 평가 역량 ▲고교교육 연계성 ▲사회적 책무성 ▲예산 운영 등 4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평가 결과에 따라 S등급(20%), A등급(60%), B등급(20%)으로 구분해 사업비를 차등 지원한다. S등급 대학에는 사업비의 10%가 추가 지원되며, B등급 대학은 사업비가 10% 감액되고 사업관리기관인 대교협의 추가 컨설팅을 받게 된다.

평가 결과 S등급 대학은 강원대 경기대 경인교대 대구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대 상명대 서울과기대 숙명여대 인천대 조선대 진주교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남대 한동대 한양대(ERICA) 호서대 등 18개교다.

A등급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남대 건국대 경상국립대 경운대 경희대 고신대 광운대 광주교대 국립경국대 국립공주대 국립군산대 국립목포대 국립부경대 국립창원대 국립한국교통대 단국대 대구교대 대구한의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WISE) 동아대 동의대 명지대 배재대 백석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선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아주대 영남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충남대 한국교원대 한라대 한림대 한양대 등 55개교다.

B등급은 건국대(글로컬) 경남대 계명대 고려대 국립금오공과대 국립순천대 국립한밭대 국민대 대구가톨릭대 동명대 서강대 울산대 이화여대 제주대 중원대 한국공학대 한성대 홍익대 등 18개교다.

자율공모사업에 참여한 16개 대학은 모두 적정 수준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자율공모사업은 ▲입학사정관 교육·훈련(경기대·숭실대) ▲교육과정 직접 지원(경남대·경상국립대·계명대·부산가톨릭대) ▲전형 운영 개선(동국대·서울대·한양대) ▲대입정보 제공 확대(고신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선문대·아주대·조선대·호서대) 등 4개 분야로 운영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6월 초 최종 평가 결과와 대학별 사업비를 확정·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7학년도와 2028학년도 대입전형이 공교육 안정화와 사교육 부담 완화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특히 대학별 전형 운영이 고교 교육과정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례는 확산하고, 개선이 필요한 대학에는 컨설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고교학점제 이해·진로 설계 도와드려요"

**서울시교육청-11개 교육지원청 내달 고교학점제 학부모 설명회**

서울시교육청이 내달 11개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고교학점제 학부모 설명회를 연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부모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고교학점제로 달라지는 고등학교 생활 ▲과목 선택과 학점 이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성취평가와 내신 이해 ▲학생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 ▲2028 대입 변화와 학생부 준비 방향 등이다.

교육지원청별로 서울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활용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진로·학업설계 팝업 데스크, 고교학점제 토크쇼, 1대1 컨설팅 등도 운영된다.

설명회 일정과 신청 기간, 장소 등은 해당 교육지원청 또는 서울고교학점제지원센터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 신청은 5월 26일부터 6월 12일까지 교육지원청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참여 대상과 신청 방법, 세부 운영 사항은 각 교육지원청이 별도로 안내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들이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운영 방식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자녀의 과목 선택과 진로·학업 설계를 돕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 자료 제공과 상담·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파주시, '마장호수' 열린 관광지 조성

**관광 약자 이동 편의 높여**

마장호수 장애인 주차장을 우선배치했다.

파주시가 연간 130만 명이 찾는 관광지 마장호수 보행환경과 편의시설을 정비해 무장애 관광 기반을 넓힌다.

마장호수는 임진각, 공릉관광지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2024 열린 관광지 조성'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지난해부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 약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출렁다리 인근 주차장을 확장하면서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역을 우선 배치했다. 굴곡이 심했던 통행로는 완만한 경사로로 바꾸고, 무장애 데크 산책길과 쉼터를 설치해 휠체어 이용자와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높였다.

출렁다리 진입부에는 '다용도 툇마루 광장'도 새로 조성했다.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에 진입부에서 발생하던 병목 현상을 줄이고, 방문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수상 여가시설에도 무장애 요소가 반영됐다. 시는 지난해 9월 휠체어 고정 장치를 갖춘 '킹카누'를 도입했다. 겨울철 비수기 동안 운행을 멈췄던 킹카누는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동작구 보라매공원에 '플랜비 2호 정원'을 조성하고 지난 20일 개장식을 열었다. /서울시

# 서울시-현대엔지니어링 동작구 보라매공원에 '플랜비 2호 정원' 조성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동작구 보라매공원에 '플랜비 2호 정원'을 조성하고 지난 20일 개장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플랜비 2호 정원은 보라매공원 중앙잔디광장 동편 약 120㎡ 규모 꿀벌정원과 관리사무소 옥상 약 60㎡ 규모 도시양봉장으로 구성됐다. 도시양봉장에는 5봉군이 조성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2월 서울시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체결한 '기프트하우스 플랜비(Plan Bee)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이현진 기자

#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용적률 완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 법적상한용적률 최대 1.2배 확대**

서울시가 사업성 부족으로 멈춰 있던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로 확대하고 높이 기준을 차등 완화한다. 민간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해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한 1·2차 규제 완화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정체된 준주거·상업지역 중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용적률 체계 개편이다. 그동안 지구·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로 일원화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허용용적률은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일괄 적용한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공개공지 확보 중심에서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관광숙박시설까지 포함해 사업 선택지를 넓혔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역시 녹지생태공간, 저출산·고령화 대응 시설, 보행가로 활성화 등으로 조정했다.

법적상한용적률도 최대 1.2배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은 최대 600%, 근린상업지역은 1080%, 일반상업지역은 1560% 이하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상업지역에서 법적상한용적률 1.0배를 초과 적용할 경우 역세권 여부, 간선도로 접도 요건 등 입지 조건과 역세권 환경 개선, 열린공간 확보 등 공공성 기준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높이 규제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획일적 높이 제한 대신 중심지 기능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도심은 별도 높이 제한 없이 운영하고, 광역중심은 150m, 지역중심 이하는 130m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공공시설 제공이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조정도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 인천시, 내달 17일 '국제 해양·안전대전'

**200여개 기업, 500개 부스 규모 참가**

인천광역시는 오는 6월 17일부터 3일간 2026 국제 해양·안전대전이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

수도권 유일의 해양 특화전시회로 인천시와 해양경찰청이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리드케이훼어스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2013년 첫 개최 이후 2024년에는 200여 개 기업과 1만 7000여 명이 참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전시회는 조선, 선박, 해양 안전 등 기존 분야와 더불어 인공지능, 자율운항, 친환경 선박 등 미래 해양기술과 HD현대KT SAT 등 첨단 해양 장비 관련 200여 개 기업이 500개 부스 규모로 참가해 해양·조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전망이다.

올해는 KOTRA와 최초 협업, 20개국 해양치안기관 및 무역업체 참가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의 실질적인 1:1 상담 진행 국내 해경 및 조선소 구매 담당자와의 미팅 확대로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산업의 대표 콘퍼런스인 '코마린콘퍼런스'등 20여 개의 다양한 전문 세미나가 열려 산학 전문가와 관계자들 간 활발한 정보 교류와 협력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반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해양 안전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실제 해경 채용 시험에 적용될 '해양경찰 순환식 체험장'이 일반인과 수험생들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어 뜨거운 반응이 예상된다.

윤희청 시 관광마이스과장은 "올해 전시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회와 비즈니스 상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해 전문성과 대중성을 모두 확보했다"며, "많은 시민이 송도컨벤시아를 방문해 대한민국 해양 안전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체감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